

민주화운동 역사적 의미 확장 · 정신계승

전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 정신계승 위원회 출범... 기본계획 심의 · 정책사업 발굴 등 지원

전북도는 30일 도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인원은 민주화운동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이며, 앞으로 2년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기본계획과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에 대한 시책 수립 사항을 심의하고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을 심의,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2023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이 관련 조례(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



전북도는 30일 도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신계승에 관한 조례)에 따라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립과 기억예우를 위한 기반 마련 후, 가치교육과 활용 · 확산까지 이어지는 5대 전략과 19개 과제를 담았다.

이에 도는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해 '모두와 함께하는 기념사업, 도민이 참여하는 정신계승'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라북도의 민주화운동 역사

재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및 기술 기록화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 지원을 위한 추모 · 기념행사와 민주화운동 기억의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교육하고,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도민인식 확산을 위한 예술콘텐츠 제작 및 역사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정신계승사업 추진을 위해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 및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조봉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라북도는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로서 자긍심을 갖고,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도내 전반에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며, "우리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확장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넘어 미래세대와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봄꽃 축제' 풍성하게 열린다

도내 8개 봄꽃 축제 개최... 다양한 공연 · 이벤트 등 진행

도내 봄꽃 축제가 4년만에 가지개를 넘어 도내 곳곳에서 상춘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도내 봄꽃 명소에서 8개의 봄꽃 축제가 개최되며, 다양한 공연 · 이벤트와 지역 먹거리도 함께 제공해 봄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봄꽃 축제는 3월 28일 '익산 배산벚꽃축제'부터 30일에 '순창 육천골 벚꽃축제', 31일에 '군산 벚꽃 야시장', '정읍 벚꽃축제', '김제 꽃빛드리 축제', '고창 벚꽃 축제'가 개최되며, 4월 1일에는 '부안 개암동 벚꽃축제', 2일에는 '전주 한내로 벚꽃축제'가 개최된다.

또한, 벚꽃에 이어 4월과 5월에도

꽃잔디, 철쭉, 유채꽃 등 꽃황기 가득한 봄꽃 축제와 더불어 여유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부안마실축제(5.4.~5.6.)', 반려동물 문화축제 '임실 의견문화제(5.5.~5.7.)', 남한루에서 만나는 사랑이야기 '남원 춘향제(5.25.~5.29.)' 등 볼거리 가득한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의 계절 9월과 10월에는 전북도 대표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 임실N치즈축제를 비롯해 전주비빔밥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고창모양성제 등이 개최될 예정이며, 각 지역의 맛과 멋, 풍성한 즐길거리 가득 담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등 벌써부터 축제 준비에 바차를 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자동차부품산업 관계기관 간담회 가져

전북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과 부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도는 30일 전북도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 군산시,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자동차부품협회의 회와 함께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자동차부품협회의(회장 신현태) 회원들은 오는 4월 4일로 예정된 군산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기간 만료와 관련해 도와 시군의 철저한 대응을 요청해 왔다.

이에 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연착륙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특례보증 자금지원 및 위기지역

물품 수송 · 물류비 지원 연장 등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 등을 설명하며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부품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는 먼저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내 부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부품업체들의 노고에 매우 크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도 차원에서 여러 기반시설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부품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해 도내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시동

김중훈 경제부지사, 전북 국회의원 찾아 지원 요청

전북도가 본격적인 부처 예산편성 돌입에 앞서 국회 방문 활동을 전개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장도에 올랐다.

30일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전북 국회의원들을 찾아 권역별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의 부처예산안 반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된 가운데, 이에 대응해 부처당국 국가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머리를 맞댄 것이다.

특히, 김 부지사는 전북 미래 먹거리 주축사업으로써 전북도 예타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글로벌 청정수소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전주기 수소산업 육성토대 마련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 및 설계용역비 반영과 함께 국가 주도의 수증분화제 조사 ·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수증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세계 산림약용식물 단지를 조성하는 '지역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상반기 중에 예타 대상 사



30일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전북 국회의원을 찾아 권역별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의 부처예산안 반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체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자율주행 상용차 보안 신뢰성 확보 기반 조성', '수소전기차 중대형 핵심부품 비교과 3D 안전성 검사 플랫폼 구축',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및 안전 기술 개발' 사업의 국비 반영 지원을 요청했으며, 주력산업인 탄소산업과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산업을 연계한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개발' 사업이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심회 회의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농생명산업 분야는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농축산용

소재 바이오파우더 실증기반 구축',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 건립' 사업 등이 부처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거점 개발 사업으로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동서화합 육십령 가이더 조성',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녹색 신산업 육성사업으로는 '친환경 소재 소형선박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고청군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등의 부처예산 반영 지원도 요청했다.

김중훈 부지사는 "정부의 기본방향에 엄격한 재정재정 관리로 내년도에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초를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맞춰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대응 논리를 보강해 부처를 상대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지역특화 과학치안 활성화 연구기관 협약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지역특화 과학치안 활성화를 위해 치안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과학치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과학치안 저변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전북도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과학치안 연구개발사업 추진, △수요기반 치안현황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과학치안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자문, △지역치안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위한 조직진단 용역 착수

전북도는 도 산하 공기업 · 출연기관 경영혁신의 기초가 될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함께 기관운영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통합매뉴얼을 마련한다.

도에 따르면 조봉암 행정부지사, 도 산하 공공기관 관리자, 주무부서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용역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올해 9월까지 6개월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조직, 인사, 재정 등 기관별 조직진단, △유사기능 조정 및 통합, △합리적

임금체계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내부규정 정비 등 기관별 경영진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조직진단은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지난해 12월 민선 8기 도정운영방향에 맞춘 조직 개편, 재정 건전성 확보, 운영 효율 강화 등 기관별로 발굴한 120개 혁신과제 점검과 함께 진행된다. 또한, 도는 조직, 인사, 기능조정, 재정 등 전체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매뉴얼 제작도 용역 과업으로 추진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